

유수론회장 동탑산업훈장 수훈



유수론회장은 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LPG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LPG산업 발전을 위한 배송센터 시범사업 참여, LPG용기관리개선방안연구, 경유차LPG개조사업참여, LPG경차 허용을 이끌어 내는 등 LPG업계 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인정받았다.

범국민 가스안전의식 고취와 가스산업 종사자들의 사기양양을 도모하고자 개최된 '08.6.27(금) 63빌딩 국제회의장(여의도 소재)에서는 제15회 가스안전축진대회에서 한국LPG가스공업협회 유수론회장이 동탑산업훈장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유수률회장은 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LPG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LPG산업 발전을 위한 배송센터시범사업 참여, LPG용기관리개선방안연구, 경유차 LPG개조사업참여, LPG경차 허용을 이끌어 내는 등 LPG업계 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인정받았다.

유수률회장은 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LPG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LPG산업 발전을 위한 배송센터시범사업 참여, LPG용기관리개선방안연구, 경유차LPG개조사업참여, LPG경차 허용을 이끌어 내는 등 LPG업계 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인정받았다.

또한 개별 충전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SO14001 / KSA14001인증취득을 통한 환경경영 실천은 물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을 무상설치 등의 조건으로 전환한 결과 영동·영서지역 10,800여세대에 약630여기의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LPG안전·안정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 및 안전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전직원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 만족을 위해 소비자시설 개선은 물론 LPG공급지역의 가스공급배관 및 가스설비에 대해서 무상으로 가스누출 검사를 실시하고, 충전소를 방문하는 LPG차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수률회장은 이번 동탑산업훈장 수훈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더 가스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아울러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장학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장애인단체 후원 등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손병헌부회장 취임



지난 6.24(화) 협회 상근부회장에 손병헌부회장이 정식 취임해 업무과약을 시작했다.

손병헌부회장은 지식경제부 안전대책팀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우리협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취임 인사를 통해 우리 협회가 업계의 최고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한봉사를 할 것을 약속했다.

양력

- 1951년생
- 1978 경찰직 9급공채(법무부)
- 1980 행정직 7급공채(보건복지부)
- 1984 상공부(중소기업정책과)
- 1991 통상산업부(무역정책과, 유전개발과)
- 1994 국비 장기 일본파견
- 1997 산업자원부 행정사무관
- 2003 일본 경제산업성 파견과장
- 2007 지식경제부 안전대책팀장

대만 LPG업계관계자 협회 방문

한국의 LPG산업현황 및 정책 등 설명

지난 6.5(목) 대만 LPG 업계 관계자가 협회를 공식 방문, 양국의 LPG산업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대만경제종합연구원의 유국천(Liu Gwo-Chen) 연구원은 국내 LPG산업의 운영현황, 정책 및 LPG도·소매가격, 생산량, LPG관련법규 및 주관기관, 계량기 요금계산 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문의했으며,

특히, LPG용기에 대한 소유 및 검사방법 등 LPG용기관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국천연구원은 한국과 대만 LPG업계가 앞으로 더욱 많은 교류가 있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전했고, 권순영전무 역시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협회 권순영 전무(우)와 대만경제종합연구원 유국천 연구원(좌)이 양국 LPG산업에 대한 의견 교환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없는 사람이 비싼 연료 때서야 ...

LP가스공업협회, 유통구조 개선 나서



도시가스(LNG)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아직 많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프로판가스(LPG)를 쓴다. 농어민이나 소규모 상가 주인 등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열악한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LPG가 LNG보다 훨씬 비싸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www.lpgas.or.kr)는 최근 이처럼 불합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배송센터 도입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수입사·충전소·판매소·소비자 등 4단계인 현행 유통구조를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이다. 충전소와 판매소를 배송센터로 통합해 곧바로 소비자에게 배달함으로써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소개했다.

협회 관계자는 “배송센터 도입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지난해 마무리된 시범사업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교차배송 및 종업원·운반차량 등을 줄일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고유가시대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LPG가격인하가 시급하다.

한국LPG가스공업협회 유수륜 회장은 LPG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프로판가스 1kg당 20원씩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LPG업계와 협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 3월 40원이었던 개별소비세를 20원으로 낮췄으나 궁극적으로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LPG 용기 검사기간도 연장해 용기관리 비용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자동차용 LPG(부탄가스) 충전소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인하도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2001년부터 매년 세금과 유가가 폭등하고 있음에도 수수료율이 1.5%로 고정돼 충전소 경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LPG충전소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1995년 리터당 2.88원에서 2008년 5월 14.19원으로 올라 무려 39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회장은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LPG 가격 인하가 시급하다. 배송센터 도입, 용기 관리비용 절감 등 협회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만으론 부족한 실정이다. LPG 연료 차량을 1000cc 이하 경차에까지 확대했던 것처럼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6.3일자 보도〉